

소식·동정

● 2014년 근로환경조사(KWCS) 논문 경진대회 실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장려 하고자 근로환경조사(KWCS) 논문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논문주제

- 근로환경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주제

2. 자료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정보마당→산업재해통계→근로환경조사

3. 응모자격

-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단독 또는 공동지원 가능

4. 논문양식

- 세부요령을 참고하여 20매 이내로 작성 (<http://oshri.kosha.or.kr> 참조)

5. 시상내역

- 최우수상(1팀), 우수상(3팀)
- 상장 및 상품, 국제학술지(SH@W 등재 기회 부여)

6. 접수방법

- 이메일(kwcs@kosha.net) 또는 우편접수

7. 문의처 : 052-7030-833

- ☞ 논문접수 마감 : 2014. 5. 30(금)
- 논문심사 발표 : 2014. 6. 13(금)
- 최종 발표대회 : 2014. 7. 10(목)

☞ 본 경진대회에 사용되는 자료인 근로환경조사(KWCS)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국 5만가구에 대해 실시하는 대단위 조사자료로 2006년 제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금년 제4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내 위험요인 노출 및 건강문제, 근로시간 및 강도, 일과 삶의 균형, 근로만족 등 다양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근로환경의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산재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환경조사자료는 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 조사자료(EWCS)와 국제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 2014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도 청력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청각검사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 인력기준 해당자
- 청각판정교육 :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이상

2. 신청방법

- <http://k2b.kosha.or.kr> 접속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3. 교육일정

- 청각검사교육
 - 초급 : 4.4(금)-4.5(토), 4.11(금)-4.12(토), 7.14(월)-7.15(화), 7.21(월)-7.22(화)
 - 중급 : 4.3(목), • 고급 : 7.24(목)
- 청각판정교육 : 4.10(목)

4. 문의처 : 052-7030-883

● 안전보건공단 입사 및 연구원 전입을 환영합니다.



■ 직업건강연구실
■ 이새롬 연구위원
(예방의학 전문의)



■ 직업건강연구실
■ 박재찬 연구위원
(직업건강의학 전공의 1년차)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연구원장 메세지

“리스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리스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 이 법을 제정하여 처음 적용했을 당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자수가 651명이었는데 가장 최근 (2012/2013년)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합쳐 148명이었다고 합니다. 1974년 이전까지는 영국의 산업 재해통계에서 자영업자는 물론 제외 되어 있었고 종전의 법 적용대상이었던 업종들의 재해 통계자료만 집계된 것이 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사망자수의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 사망은 하지 않은 업무상 손상자수는 같은 기간 동안 75% 이상 줄었다고 하니 지난 40년간 영국의 산업재해 변화는 정말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1974년 제정된 영국 산업안전 보건법이 무슨 마술을 부린 걸까요?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된 로벤스



보고서 (Robens Report, 1972년)는 영국의 산업재해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원인이 법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세세하여 사업주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크고 넓게 사업주가 지켜야 할 목표만 제시한 채 “리스크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리스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법률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 하였습니다.

로벤스 경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리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인 처방으로 되어 있던

이전의 업종별 법규로부터 목표와 원칙만 제시하고 실행규칙과 지침 (codes of practice and guidance)으로 보완하는 유연한 형식의 통합된 법 체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날 영국의 산업구조가 중공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부터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여전히 잘 먹히고 있어 처음 제정될 당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이해관계자들은 “리스크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리스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원칙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 정 선

안전보건 단신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임용식 및 진급식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년 3월 3일(월) 11시 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임용식 및 진급식을 개최하였다. 임용식은 박정선원장의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공단 소속 전공의 임용 및 진급자는 1년차 1명, 2년차 1명, 3년차 2명, 4년차 2명으로 총 6명이다.



☞ 동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역학조사/정도관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2014년 2월 27일(목) 10시 세미나실에서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이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 연구원,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에서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은경 박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노출시나리오 동향 및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에서의 도입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내외 법을 통해 요구되고 있는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노출시나리오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노출 예측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추진단 발족 및 기술자문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년 2월 14일(금) 10시 화학물질센터내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신축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내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식,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위촉과 기술자문회의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 시설은 지상3층(연면적 6,300㎡)규모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15년말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의 전담 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제 기준의



O E C D G L P 독성 시험 시설로 국내 최초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공단, 울산 신사옥 개청식 개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현기)은 2014년 3월 7일 (금) 11시 안전보건공단 신사옥(울산광역시 중구 400) 대강당에서 울산 혁신도시로의 본부, 연구원, 교육원 이전에 따른 개청식을 갖고, 산재예방사업 개편안을 통한 산재예방 중심기관으로 재도약을 준비하였다.

이날 개청식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울산 지역 자동차·화학 공장 대표, 노동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현장중심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재도약을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안전연구, 보건연구, 인증업무 위한 3개 연구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보건 단신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지원사업 설명회 및 분야별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등록 및 자금지원사업 안내, 2014년도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장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부산역사(2. 25), 인천 산업안전보건교육원(2. 28)등 총 2회로 나눠 이루어 졌으며, 모두 79개 사업장에서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확인심사 주기 연장 및 화학물질용 보호구 관련 안전인증기준 제·개정 사항, 분야별 부적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설계·제품 제조 시 반영사항, 울산이전에 따른 품목별 제품심사 실시 가능시기 안내 등의 내용이 다루어 졌다.

안전인증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안전보건정책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3월 13일(목) 서울 르네상스 호텔 에서 2014년도 제1차 안전보건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학계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는데, '2013년도 산재예방정책 평가 및 2014년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 후 2014년도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포럼은 산업·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의 모색 및 설정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토론하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조찬모임 형태로 매월 개최될 예정으로, 다음 포럼은 4월 24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활동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회의 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선 원장은 2014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에서 주관한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Workers Health) 전략 마련 회의에 단기자문관으로 위촉되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박정선 원장은 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과 노동자보건(Workers Health)의 통합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실무자들 및 다른 자문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예방전략 및 그 역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산업보건과 노동자보건의 통합 지점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부터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식·동정

●SH@W(Safety and Health at Work) 5권 1호 발간

우리 연구원이 발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영문 국제학술지 SH@W는 2010년 9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5년째로 접어들면서 5권 1호가 2014년 3월에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는 스위스 베른 대학의 Achim Elfering 박사와 3명이 제출한 'Workflow interruptions and failed action regulation in surgery personnel' 논문을 포함하여 총 9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국내 논문은 2편이며 나머지 7편은 모두 국외에서 투고된 논문들이다. SH@W가 2013년 4월 25일 SCOPUS에 등재된 이후 논문 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인간공학 분야의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정명철 교수가 위촉되었고 현재 인간공학 분야의 편집위원은 홍익대학교의 박희석 교수와 호주의 David Caple 그리고 미국의 Laura Punnet 등 3명이다.